



## 외로운 사람들

All the lonely people

### 우주선 주상복합

서울의 한 대형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우주선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고 얘기한다. 땅에 발을 내리지 않고도 쇼핑부터 카페, 식당을 다니며 건물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은 너끈 땅에 '착륙'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는 그의 거주환경이 일반적이지는 않을 듯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거리를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상복합 우주선에서 살고 있는 지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 거리가 삶의 활력과 우연한 만남<sup>chance encounter</sup>의 현장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또한 같은 살균된 우주선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지 않다.

거리 및 외부 환경이 이동경로로서만 사용된다면, 마크 오제<sup>Marc Auge</sup>가 본래 공항같은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 명명한 비-장소<sup>non-place</sup>처럼, 역사적인 의미도 상징도 없는 이동과 통행을 위해서만 소비되는 공간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이며, 이런 공간에는 소위 공공의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의 공공공간은 오히려 공항같은 준공유공간에서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막과 청결함만이 결여된 더 추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 이상 도시의 산책자<sup>Flaneur</sup>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공간을 산책하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하이퍼텍스트/링크(타래<sup>thread</sup>를 따라, 혹은 키워드를 따라 계속해 연달아 다른 내용을 살펴보는 것)는 일상이 되어 뉴스에서부터 취미, 그리고 실제로 방문할 곳을 선정하는 것까지도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아니, 실제 장소를 앞에 두고도 핸드폰으로 더 명확한 정보를 구한다. 실제 장소는 바로 사진으로 찍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sup>hyper-real</sup>으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한다. 이제 인간의 거주장소는 비장소<sup>non-place</sup>를 넘어 온라인상의 우-플레이스<sup>u-place</sup>(유토피아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접두사 <sup>u</sup>를 적용하여)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남수현, 넥스토피아저 공공영역을 향하여 (정림재단) 중.

supernam studio는 지난 2년 동안, 졸업스튜디오의 주제로 공공영역의 변화, 그리고 주거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변화 3부작의 마지막인 2021년 스튜디오의 주제는 <외로운 사람들 all the lonely people>이다. 비틀즈 노래의 가사에서 가져온 이 제목은 COVID19 후 공공공간의 존재의 양식 및 가능성의 기저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테마의 특성을 표현하려고 정하였다. 또한 약간 멜랑콜리한 제목 자체가 우리 시대의 어찌저못함 helplessness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던 공공공간은 이제 와해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인간 상호간에 최소한의 상호작용<sup>interaction</sup> 자체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얼마나 진실<sup>authentic</sup>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비판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 상호작용을 재정의한다. 그 후 자신의 정의에 맞는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그 후 건축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스튜디오의 목적이다.

참여할 학생은 반드시 개별상담 후에 지원을 바람. soohyounnam@mju.ac.kr

### | 스튜디오 진행과정 |

겨울방학 중 1회 MT 및 소논문,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리 및 심사/채점이 있을 예정입니다.